

탈(脫)석탄 선언 이해관계자 서신

존경하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현대건설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우리 기업이 창출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믿음으로 한국 건설사 중 가장 오랜 기간 지속가능경영과 글로벌 CSR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 11년 연속 월드(World) 그룹에 편입되는 등 글로벌 건설 리더 기업으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지난해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수준까지 ESG 경영 체계를 재정립 하였습니다.

금년 현대건설의 ESG 거버넌스 조직들은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 ESG 현안과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현재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우리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이 곧 지속 가능한 기업성장의 방향이라는 믿음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분들께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현대건설 탈(脫)석탄 선언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입찰·계약 종료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존 석탄 발전소 시공 사업을 종료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 관련 투자, 시공 사업에 있어 신규 사업 참여를 전면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 확대

현대건설은 최근 저(低)탄소 및 친환경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산업 인프라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 상황에 발맞춰 태양광, 수소연료발전,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팜, 바이오가스, 오염토정화, 수(水)처리 등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현대건설 2025 전략'에 일환으로써, 당사는 에너지 사업부문에 있어 기후변화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전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내부적으로도 기존 석탄화력 관련 조직을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개편하여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당사는 친환경 기술(Green R&D) 역량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향후 ESG 채권 발행을 검토하여 조달된 해당 재원을 국내 및 해외 신재생·친환경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환경 및 안전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을 국내외에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일조함으로써 경제적 성과의 사회환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현대건설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에 지난 2012년부터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략 등 탄소 배출량 및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경영을 위한 전사 차원에 내부 검토를 토대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 노력, 친환경·에너지효율 상품 확대 등 환경에너지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아이টে을 추가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탄소저감 CSR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분들의 요구 등에 부응하고자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사항을 지지합니다. 이에 글로벌 ESG 정보 표준인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국제표준), TCFD, 세계경제포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가이드 라인(WEF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등 우리 기업의 ESG정보를 폭넓게 반영한 정보 공시를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금번 현대건설의 탈(脫)석탄 선언이 우리 건설업계의 바람직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향후 산업계 전반에 확대되어 우리 건설산업의 발주 환경 변화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리더로서의 사명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이해관계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 임 사 외 이 사
(주주권의 담당위원)

박 성 득

현대건설 CEO

사 장

윤 영 준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

부 사 장

이 원



